

초박빙 대혼전... '운명의 날' 閔 vs 金 누가 웃을까

(기호 1번 민형배) (기호 2번 김영록)

6.3 지방선거 D-50

'운명의 날'이 밝았다. '초박빙 대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결선 투표가 14일 오후 6시 마무리된다. 1개월여 경선 레이스를 거쳐 '끝장승부' 결선에 오른 기호 1번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과 기호 2번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 중 누가 초대 통합특별시장 후보 자리를 거머쥘지 결과를 예상하기 힘든 초접전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2·3·10·11면

"바닥 민심과 지지세가 견고하다"는 민 후보 측과 "신정훈·강기정 연대 후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김 후보 측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어 '권리당원 50%+일반 여론조사 50%'로 진행된 결선 투표 표심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간 진행 중인 결선 투표는 본경선(4월3-5일)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민형배 후보와 김영록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고 있다.

두 후보가 맞대결하는 결선 국면에 돌입하자 잇따른 단일화와 연대 선언으로 판세가 요동치면서 경선판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민형배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변화'와 '세대교체' 프레임이 전면으로 내세우며 핵심 지지층 결집에 주력해 왔다. 경선 초반부터 구축한 핵심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며 막판까지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단단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이른바 '집토끼 사수' 전략을 펼쳐 비교적 안정적인 득표 구조를 유지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 후보는 경선에 나섰던 주철현 국회의원과 의연대를 기반으로 전남 동부권 세 확장에 총력을 기울였다. 광주·전남 전·현직 지방의원 과 시민사회 각계 인사, 지역 학계 등이 단체 지

민주 통합특별시장 결선투표 오늘 종료

閔, '변화론' 앞세워 핵심 지지층 표 단속

"바닥민심·지지세 견고 무난한 승리 예상"

金, '反閔 빅텐트' 막판 '세 확산' 총력전

"辛·姜연대 이후 상승세 뚜렷 승리 자신"

'끝장승부' 예측 힘들어...표심 향배 촉각

중앙당선관위, 오후 6시30분께 결과 발표

지 선언에 나선 데 이어, 신정훈 의원을 지지했던 일부 세력이 민 후보 지지로 선회하기도 했다.

민형배 후보 측 '민심캠프' 관계자는 "예비경선·본경선을 거치며 이미 바닥 민심의 뜻을 확인했고 지지세 또한 견고하다"며 "상대 후보의 연대 움직임과 상관 없이 민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맞서 김영록 후보는 검증된 행정능력과 안정감을 앞세워 표심을 결집시키며 세 확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당내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연대 효과' 극대화에 공을 들이며 의연



최종 승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기호 1번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과 기호 2번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가 결선 투표를 앞두고 지난 9일 광주남구 월산동 광주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광주매일신문 DB)

확장에 집중했다.

실제 이병훈 전 예비후보가 김 후보 캠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데 이어, 이계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특히 김 후보는 본경선에서 탈락한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과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와의 연대를 완성하며 세 결집 흐름에 정점을 찍었다.

또한 주승용 전 국회의장, 김희재·김성곤 전 국회의원 등 전남 동부권 중진들이 김 후보 캠프에 합류한 데 이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명예 후원회장을 맡고 광주 기초단체장도

함께하는 등 초대형 '반(反)민형배 빅텐트' 구축에 성공했다.

김영록 후보 측 '탄탄캠프' 관계자는 "신정훈·강기정 연대 성사 이후 김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하다"며 "유권자들도 7월 출범할 통합특별시장의 수많은 난제를 풀어나기 위해서는 행정능력과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민 후보가 기존 지지층의 결속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김 후보가 막판에 형성한 매머드급 연대 효과를 실제 득표로 연결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선 투표의 승패를 가를 최대 관

건이 될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형배 후보 측이 경선 막판 김영록 후보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인 것은 결국 연대 효과를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결선 투표를 코앞에 두고 지난 9일 이뤄진 김영록·신정훈·강기정 연대가 5일 동안 얼마나 컨벤션 효과를 발휘했는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정부·여당 "車보험료율 인하안 내주 발표"

'5·2부제' 차량 운행 제한 인하 요인

총량제 봉투 등 품목 '1일 모니터링'

안도길 "추경 6월까지 85% 신속집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를 열어 중동 사태에 따른 5·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

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길 의원은 이날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천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천~8만7천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석유 수급 상황에 대해선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 물량 확보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개 정유사가 비축유 스톡과 등을 통해 약 3천만 배럴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서 1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 물류 보급 현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총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기후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 봉투도 (쓰레기 봉투로) 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기초 원료인 나프

타 단가 상승을 고려해 기존 원료를 대체하는 재생 원료 활용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안도길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며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oday

통합 교육감 8명 출사표 '본격 레이스' 3면

흔들리는 기억의 초상, 연극 '더 파더' 15면

'10연승 가자'...KIA, 기아·두산 6연전 16면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 시통발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04 교차로 중심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노출 효과

- ▶ 백운광장 일대 교차로 통행 차량 약100,000대, 푸른길 브릿지 이용자 수 약2,000 ~ 3,000명으로 차량 승차 인원 및 보행자 등 하루 수십만명 노출 효과 추정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광주매일신문 ☎ 광고문의 062) 650-2070